

2000년 이후 중국 중앙 텔레비전 프로그램 속 鄧小平 인물 서사 변화의 의미 연구*

이병민**

<目 次>

1. 연구목적과 대상
2. 연구대상 작품 속 鄧小平 인물 서사변화
 - 1) 『鄧小平』의 鄧小平 인물 서사변화
 - 2) 『百年小平』의 鄧小平 인물 서사변화
 - 3) 『歷史轉換中的鄧小平』의 鄧小平 인물 서사변화
3. 鄧小平 인물 서사변화에 따른 의미 탐색
4. '문화정치'에 가려진 무거운 현실

1. 연구목적과 대상

鄧小平은 “검은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라는 말을 한 실용주의자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또한 그는 현대 중국 개혁개방의 총설계자라는 상징적 의미도 지니는데, 이로 인해 TV의 시사프로그램이나 다큐드라마, 영화 또는 다큐멘터리 등에서 호출되어 왔고 이로써 여전히 중국사회를 추동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다.

왜 이러한 인식이 가능한가?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개혁개방은 지속되어야 하고 심화되어야 하는 것이 중국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제분야에 있어서의 개혁개방은 어느 정도에 이르렀을까? 중국 공산당은 2006년 (노동자의 임금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5A07920319).

**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초빙교수

보다 채권자의 권리를 우선하는) 파산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2007년 물권법을 도입해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이르렀다.¹⁾ 재산권상의 ‘국유’리는 사회주의의 근간을 스스로 허문 것이다. 개혁개방은 여전히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중국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도 날로 높아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치적으로도 胡錦濤 前 총서기를 제4세대 지도자로 鄧小平이 직접 낙점했다는 점도 꽤 알려져 있으며 이는 그가 계속적이고도 광범위한 영향력을 지닐 수밖에 없는 단적인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개혁개방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라는 것이 鄧小平 ‘유혼통치’의 핵심내용임을 입증하듯, 習近平 총서기는 개혁의 심화라는 국정 목표를 내세웠다. “중국 발전의 실천은 당시 덩샤오핑 동지가 중국공산당을 지도·수행했던 개혁개방의 정책결정이 탁월하고 정확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중략) 우리는 이 길을 흔들림 없이 계속 나아가야 하며 새로운 실천을 통해 새로운 수준에 올라야 한다”²⁾ 거나, “중국의 발전이 직면한 일련의 두드러진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건강한 발전을 이룩하며 지속적으로 인민의 생활을 개선하려면 전면적 개혁 심화가 필요하다”³⁾는 연설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아울러 鄧小平이 각종 매체에 얼마나 노출되는가를 살펴보면, 그의 이름을 내건 2000년 이후의 영화만 따져도 2001년에는 『鄧小平在1976』이 있었으며, 2003년에는 『鄧小平』, 2014년에는 『鄧小平在黃山』이 있었다. 2002년에 봉황위성 TV는 『永遠的小平』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방영하기도 했다.

나아가 2000년 이후 중국 국영방송인 중앙 텔레비전(China Central Television, 이하 CCTV) 프로그램에 나타난 鄧小平 인물에 대한 서사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들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1) 박형기, 『덩샤오핑 개혁개방의 총설계사』, 파주, 살림, 2007년, 9월, 73쪽.

2) 중공중앙문헌연구실 편, 성균중국연구소 옮김, 『시진핑, 개혁을 심화하라習近平, 關於全面深化改革論述摘編』,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5년, 6월, 19쪽.

3) 상동, 22쪽.

연구대상으로 삼은 TV 프로그램은 鄧小平과 관련하여 많은 인물들과의 인터뷰와 함께 그의 평생에 걸친 歷程을 재구성한 다큐멘터리 『鄧小平』과 그의 가족, 친지 및 그와 인연을 맺은 많은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담고 있는 다큐멘터리 『百年小平』, 그리고 그의 생애 일정 시기를 드라마로 재구성한 다큐드라마 『歷史轉換中的鄧小平』⁴⁾이다.

鄧小平은 20세기 거의 전 시기, 즉 중국의 공산당 제1세대로서 공산혁명에서부터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과 문화대혁명 등 굵직한 역사적 사건을 거치는 동안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핵심적인 인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鄧小平을 주인공으로 다룬 『鄧小平』, 『百年小平』, 『歷史轉換中的鄧小平』 각각의 작품들이 그의 일생의 서로 다른 시기 또는 다른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20세기 중국역사와 '鄧小平'이라는 인물의 다양한 측면을 보는 것이기도 하다.

이 세 작품이 다분히 객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실적으로 鄧小平의 행적과 사상을 복원하고자 애쓴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선택과 배제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만을 보여주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과연 무엇을 선택했고 무엇을 배제했는지 혹은 선택한 부분에 대해 확대, 심화한 부분이 있는지 등, 작품 간의 서사 차이점을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이 우선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이를 기초로 『鄧小平』, 『百年小平』, 『歷史轉換中的鄧小平』에서의 서사변화를 통해 각각 鄧小平을 어떠한 인물로서 소환하고 이것이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위 연구대상 작품들은 사상과 이념을 중시하는 중국의 통치 풍토에서 중국 정부의 사상통제와 선전의 주요 매체 중 하나인 TV 프로그램 속에서 鄧小平이라는 중국사회의 상징적 인물의 어떠한 면모를, 어떠한 중국사회의 콘텍스트(context)의 변천과 더불어 어떤 시대적 과제의 요청과 결부하여 호출

4) 2014년 12월 17일 저녁 안휘성 위성TV(安徽衛視)의 "2014國劇盛典"이 북경에서 거행되었고, 이때 이 드라마는 베스트10(十佳) 드라마로 선정되었고, 2015년 8월에는 제17회 華鼎獎에서 전국 시청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라는 평가를 얻었다. 2016년 10월에는 제11회 金鷹TV예술 우수드라마상을 수상하였고, 2017년 2월에는 제11회 TV제작업(製片業)의 '텔레비전 드라마 우수작품'상을 수상하였다. (百度百科에서 드라마 제목으로 10월 6일 검색)

하고 있는지와 그에 따른 서사변화 및 그 의미에 대한 탐색이 요청된다.

나아가 그 시대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鄧小平을 다루는 서사의 방식과 내용 및 관점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이것들이 시청자의 뇌리 속에서 오늘날 중국의 정치적 사회적 이슈와 무의식적인 결합을 함으로써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데올로기⁵⁾의 전파 역할을 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텔레비전은 시청자들에게 사회관계의 의미를 전달하는 중요한 '재현 체제' 매체 중 하나로서 이데올로기 효과를 지닌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요컨대 문화는 사회적 지배가 유지되는 영역이자 동시에 이에 대한 저항의 움직임이 유발되는 공간이며, 문화정치는 바로 이처럼 문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불평등 관계의 유지 및 변화의 상호 대치적 움직임 및 이를 포착해서 그려내려는 비판·생성적 관심을 가리킨다."⁶⁾는 담론을 바탕으로, "중국의 정치권력이 '鄧小平'을 TV 프로그램에 호출하는 서사 의미에 따라 사회적 지배와 불평등을 정당화하려는 은밀한 '문화정치'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가장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다큐드라마 『歷史轉換中的鄧小平』에서

-
- 5) 이데올로기는 대중문화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고전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 이론에 의하면, 지배적인 관념은 항상 지배적인 계급 위치에 상응하며, 지배 계급 전체는 어떤 특정 이데올로기 안에 위치하는 그 자신의 관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우선 알튀세의 논의를 따라가 보고자 한다. 첫째, 알튀세는 이데올로기에서 계급 환원론에 반대한다. 어떤 사회 계급의 이데올로기적 입장은 사회적 생산 과정에서 그 계급이 차지하는 위치에 항상 상응하리라는 것이 어느 정도 확실하다는 생각을 거부한다. 둘째, 이러한 이론은 실제로 알려진 모든 지배계급이 왜 현실 역사 여건에서는 다양한 이데올로기에 의존하거나 이데올로기를 수시로 바꾸어 진전을 이룩했는지 납득시키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모든 주요한 정치 구성체 내에서는 지배 계급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 구실을 하기에 적절한 '관념idea'이 어떤 것인지를 놓고 왜 내부 투쟁이 벌어지는지도 설명해 주지 못한다. 또 역사적 사회구성체에서 피지배 계급이 자신의 이익을 해석하고 정의하는 데 왜 '지배적 관념ruling ideas'을 상당 정도로 이용해 왔는지도 의문으로 남는다. 셋째, 지식은 이데올로기든 과학적이든 실천이 생산해 낸 것이다. 지식은, 현실이 담론이나 언어 속에 반영된 것이 아니다. 사회관계가 의미를 얻기 위해서는 '말과 언어 속에 재현되어야' 한다. 스투어트 홀 저, 임영호 옮김 《문화, 이데올로기, 정체성: 스투어트 홀 선집》, 서울, 이리라, 2015년, 1월, 93-94쪽.
- 6) '문화정치'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전규찬, 「문화연구(와/혹은) 문화정치」,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서울, 한국방송학회, 1997년, 218쪽

의 서사 전개를 중심으로 『鄧小平』과 『百年小平』의 서사 내용을 함께 병치시켜 보고 논의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작품 속 鄧小平 인물 서사변화

1) 『鄧小平』의 鄧小平 인물 서사변화

CCTV가 대형문헌(大型文獻) 다큐멘터리란 세부장르로서 제작, 방영한 『鄧小平』(2004)은, 鄧小平이라는 ‘영웅’적 인물의 행적을 좇으며 그를 회상하고, 100명의 중국 내외 인사들의 인터뷰도 진행하여 삽입하였다.⁷⁾ 아울러 鄧小平의 일평생과 그 속의 주요 사건들을 심도 있게 다룬 역사 문헌의 의미가 있는 다큐멘터리이다. 많은 인터뷰와 자료화면 및 문서기록 등을 활용함으로써, 주로 정치지도자로서의 鄧小平의 일생에 대한 충실한 보고서가 되고 있다.

이전의 중국 영도자들에 대한 다큐멘터리와 달리 鄧小平의 가정생활에서의 인간적인 면, 다정다감한 아버지로서의 면모를 함께 강조하고 있다. 이는 물론 개혁 개방의 총설계자로서의 그의 위대성을 강화하는 측면 또한 지니면서, 동시에 대중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드러내고자 하고 있다. 이렇게 이 작품은 다층적인 면에서 鄧小平에 접근하고 있다. 즉, 鄧小平 개인의 좌절과 복권이라는 미시 서사와, 중국의 흥망성쇠라는 거대서사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음과 동시에, 鄧小平이 자신감을 지닌 강인한 인물이면서도 자신의 부족함을 소탈하게 드러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한 인간으로서의 서사도 포함되어 있다.

鄧小平에 대한 인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지만, 거의 모든 인터뷰어들은 지

7) 이 작품은 기존 毛澤東을 다룬 다큐멘터리와는 상대적으로 평등한 입장에서 세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그 가치를 더해주고 있다. 그동안 일부 정치, 군사 등의 전기를 다룬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주던 설교식의 해설(narration), 또는 실제와 맞지 않는 감정어입이나 사상 주입 등에서 탈피한 것이다.

위고하를 막론하고 鄧小平의 직무와 관련하여 인연을 갖게 된 이들의 鄧小平의 행적 및 업적에 대한 회고와 전문 내레이션을 해설로 진행이 되고 있어 鄧小平 관련 뉴스를 보는 듯한 다소 경직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鄧小平이 어려서 프랑스로 건너가 유학을 하던 일, 귀국 후 공산당에 투신하여 중화민족의 독립과 혁명의 투쟁에의 헌신과, 토지혁명과 항일 해방전쟁에서의 공헌 그리고 공산당과 군대의 지도자로서 많은 경력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과 개혁개방의 총설계사로서의 면모를 객관적이면서도 충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던 胡錦濤 정권의 출발시기에 다큐멘터리 『鄧小平』이 방영되었다.

이 작품을 감상한 한 대학생은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좋은 교재를 제공해줘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이는 노년, 중년, 청년과 아이들, 이 여러 세대에게 중국, 혁명, 鄧小平을 알게 해주었고, 나아가 한 사람의 중국인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 지를 깨닫게 해주었다.”고 한다.⁸⁾ 『鄧小平』은 많은 인터뷰와 자료화면 및 문서 기록 등을 활용함으로써, 주로 정치지도자로서의 鄧小平의 일생에 대한 충실한 보고서가 되고 있다.

『鄧小平』은 총12集으로 구성되어 매 회마다 회고하는 시기 당시의 관련자의 구술로 시작하며 인터뷰어의 회고에 따라 서로 다른 시기의 鄧小平의 행적에 관해 구술한다. 鄧小平의 평생에 대한 일종의 傳記의 성격을 지니며, 第1集인 「早年歲月」(출생과 청년 시기: 출생~1920년대), 그의 출생부터 17세 때 프랑스로 건너가 학교를 다니고 공장 노동자로 일하던 경험을 겪고, 第2集인 「蘇區風雲」(解放區의 격변기: 1920~30년대)에서는 중국공산당의 제1세대의 중요 일원으로서 활약하다 좌경노선에 의해 첫 좌천을 겪지만, 중요한 직위로 회복하고 장정을 거치며, 第3集인 「戎馬生涯」(군인으로서의 생애: 1930~40년대)는 항일전쟁에서 ‘劉鄧大軍’(劉伯承과 鄧小平의 지휘하의 대군으로 중원야전군의 별칭으로 항일전쟁 시기 중국인민해방군의 주력부대 중 하나이다)의 정치위원으로서 명성을 쌓았고,

8) 韓冰潔, 「再次問候: 小平, 您好——電視文獻紀錄片『鄧小平』播出反響側記」, 北京, 『瞭望新聞周刊』, 1997년 第4期, 4쪽.

第4集인 「十七年間」(17년9) 간: 1949~66년)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초기 중국 西南지역에서의 경험과 부총리로서 分田(농지분배)과 包產(도급생산)을 추진한 경험 등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第5集인 「十年危艱」(10년[文革시기]의 고난: 1966~76년)은 문화대혁명시기 동안 겪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鄧小平이 지니는 낙관적 생활태도 등을 상세히 전달한다.

『鄧小平』의 第6集인 「歷史轉折」(역사의 전환: 1976~81년)에서 다루는 시기는 바로 『歷史轉換中的鄧小平』의 쉼 기간과 겹치는 셈이다. 「歷史轉折」의 후반부에는 “모택동이 없으면 오늘날의 중국이 없고, 모택동 사상이 없으면 오늘의 공산당이 없다.”는 鄧小平의 언급이 나온다. 이는 중국의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거시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第7集인 「繪制藍圖」(청사진을 그린다: 1983~1992년)은 문혁이 종결된 후 중국은 사회주의 현대화의 길을 향하지만, 과도한 목표설정으로 일정 기간 경제적인 혼란을 피할 수 없었다. 이때 鄧小平은 실사구시의 방침으로 중국이 안정 속에서 발전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第8集인 「新的革命」(새로운 혁명)은 鄧小平이 1992년 봄 南巡講話를 통해 개혁개방은 중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졌고, 일찍이 1978년 12월 농촌개혁과 계획과 시장의 조율로서 생산력을 발전시킬 것을 주장했음을 전한다. 第9集인 「走向世界」(세계로 나아가다)은 鄧小平이 여러 나라를 방문했으며, 1979년에는 마지막 해외순방인 미국 방문이 있었고, 1984년에는 남방의 경제특구를 시찰하며 개혁개방 정책이 장기적으로 불변할 것을 역설하였음을 알린다. 第10集인 「爲了和平」(평화를 위하여)에서는 1982년 10월 鄧小平의 노력으로 중소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해 정상화의 길로 갔으며, 1978년에는 일본을 방문해 중일관계의 발전을 촉진하였다는 등의 활약상을 보여준다. 第11集인 「心系統一」(통일에 마음을 두다)에서는 鄧小平이 미국기자의 대만과의 통일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민족의 영원과 영토의 완전한 회복’을 이유로 들며 ‘一國兩制’¹⁰⁾를 평화적 해결방법으로

9) 중화인민공화국 성립(1949년)부터 ‘무산계급 문화대혁명’(1966년)까지의 시기를 가리킨다.

10) 鄧小平이 제안한 ‘일국양제’ 구상은 대만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구체적으로 하나의 중국원칙, 2개의 사회제도, 고도의 자치권, 평화담판을 통한 통일실현을 포괄한다. 홍콩과 마카오가 중국에 반환되면서 “일국양제”는 실현되었다. 한홍식, 「제10장, “一國兩制”构想与中国統一之思考」, 부산, 『통일전략』 제7집, 357-358쪽 참고.

서 제시했고 1984년에는 홍콩의 반환을, 1987년에는 마카오의 반환을 약속받은 사실을 전해준다. 第6集인 「晩年情懷」(노년의 심경)에서는 鄧小平이 사직하며 지도자 간부의 종신제를 폐지시키며 혁신을 가져왔고,¹¹⁾ 1992년 심천 등 여러 지역을 참관하며 경제발전의 계속적 추진을 자극하였으며, 鄧小平文選이 출판되었다는 등의 소식을 알린다.

2) 『百年小平』의 鄧小平 인물 서사변화

『鄧小平』과 달리, 역시 CCTV가 제작, 방영했고 마찬가지로 다큐멘터리의 장르를 채용하고 있지만 『百年小平』은 상대적으로 鄧小平의 사적인 영역을 확대 심화된 경향이 있다. 이 작품은 第一集 「人民之子」(인민의 아들), 第二集 「偉人胸襟」(위대한 포부), 第三集 「熱愛生活」(철저한 생활인), 第四集 「未了的夢」(못다한 꿈), 第五集 「親情相依」(다정한 아빠), 第六集 「開創偉業」(위업을 쌓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105명의 달하는 사람들이 인터뷰에 참가하였는데, 정부 관료와 외교관, 군인, 기자, 대학생, 출판사 직원 등을 통해 정치가로서의 鄧小平에 대한 평가와 회고를 담았을 뿐만 아니라, 鄧小平의 가족과 鄧小平 주변 지도자들의 가족에서부터 鄧小平 전용열차의 요리사나 승무원, 간호사, 鄧小平의 주택관리사, 이발사 등이 鄧小平의 일상에서 겪은 인간미를 띤 일화들을 소개하며 그를 추억하고 있다. 즉, 鄧小平을 만났던 이발사에서부터 부총리에 이르기까지의, 지위고하를 막론한 각계각층의 인물들이 공적인 또는 사적인 만남에 관한 기억과 감회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을 주로 다룬 작품이다.

최고위 지도자로서의 鄧小平뿐만 아니라, 건강과 장수비결, 청렴한 삶의 실천, 한 여자의 남편, 자식들의 아버지, 손자들의 자상한 할아버지, 주변사람들을 걱정하는 동지로서의 鄧小平 등 인간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사회적 모순 해결을

11) “각급 각종 간부의 임기와 휴직·퇴직에 대해 정황에 따라 적당하고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어떠한 지도적 간부의 임기도 모두 무제한적일 수 없다.”라고 鄧小平은 밝힌 바 있다. 鄧小平, 『鄧小平文選』 제2권, 인민출판사, 1993년, 331-332쪽. 金楨柱, 「改革初期 中國 後繼 엘리트 培養體制的 改革背景과 方向」, 대구, 『동아인문학』 제17집, 2010년, 298쪽에서 재인용.

추구하는 '조화사회'(和諧社會)의 구호가 한창이던 시기이기도 했던 이때에, 鄧小平의 인간적인 면모가 강조된 다큐멘터리 『百年小平』이 방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歷史轉換中的鄧小平』의 鄧小平 인물 서사변화

北京華影文軒影視文化有限公司와 CCTV가 공동으로 제작, 2014년 8월에 총 48회로 방송되었던 『歷史轉換中的鄧小平』은 1976년 毛澤東의 타계 후 27일 때 부터 1984년 10월 1일 국경절에서 국가 지도자로서 인민군을 사열하는 시기를 담고 있는데, 이 시기는 鄧小平이 복권되어 四人幫을 타도하여 10년간의 동란을 끝맺음하고 개혁개방을 향하는 길에 들어선, 중국으로서는 새로운 시대로의 획을 긋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그야말로 鄧小平의 위인으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 주요 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12): 毛澤東 死後, 江青 일당의 鄧小平에 대한 공격 가능성이 존재한다.[아직 위기에 처한 鄧小平] 2: 四人幫은 제거되고 鄧小平은 새로 조직하는 공산당에 무조건 복종하기로 한다.[四人幫 제거] 3: 餘秋裏, 老夏와 老田은 鄧小平이 다시 나와 중국 경제를 살려주길 바란다는 이야기 나눈다.[鄧小平 복권을 인민들이 희망함] 4: 鄧小平은 당 중앙의 “兩個凡是”정책은 ‘左’의 잘못을 계승하게 되며, 교육을 잘 해야만 중국을 부흥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교육이 부국강병의 길임을 강조] 5: 鄧小平은 마침내 당내 지도자의 자리로 나아갔다.¹³⁾ “兩個凡是”¹⁴⁾의 방침이 잘못된 것임을 천명하였고, 平反을 우선적으로 실행하고 교육을 진흥하고자 했다.[鄧小平의 정식 복권] 6: 鄧小平은 스포츠도 국가의 정신 면모의 상징으로 여기며 중시하여 스포츠 인재 양성을 중시하였다. 당내 일부의 반대가 있었으나 지식인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도와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 하였다.

12) 이렇게 숫자만 적더라도 『歷史轉換中的鄧小平』의 드라마의 제1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한다.

13) 1977년 7월 中共十屆三中全會에서 鄧小平은 원래 당정군에서의 직무를 회복하였다.

14) 毛澤東에 의해 발탁되어 그의 사후 바로 뒤를 이은 華國鋒은 “마오쩌둥이 결정한 것과 지시한 것은 모두 옳다”(무릇 두 가지는 무조건 옳다)는 구호를 내세웠다.

[지식인들의 복권] 7: 鄧小平은 平反으로 권리를 회복한 지식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개월을 뒤로 미루더라도 대학입시(高考)를 그 해에 회복시킨다.[대입 회복] 8: 대학입시가 그 해 고교 졸업생만 대학입시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아무 제한 없이 참가할 수 있는 것으로 개선되었다.[입시 제한 개선] 9: 田源은 大州와 杜鵑에게 대입시험은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설득하여 시험에 응시하게 하였다. 그러나 생산대장은 그들이 근무태만이라고 비판하여 곤란하게 했다.[입시정책이 실행 과정 속에서 갈등을 낳음] 10: 田源, 大州와 杜鵑은 직장의 반대로 대학입시를 치르지 못할 뻔했으나, 알고 보니 대학입시에서 직장단위의 동의 없이도 대학입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입시정책 실행 중의 갈등이 해결됨] 11: 鄧小平은 많은 지식청년들이 정치심사로 인해 합격통지를 받지 못한 사실에 대해 분개하며 수험생의 앞날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합격처리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에 대해 재심하도록 교육부에 지시했다.[대입 정치심사에 대한 재심] 12: 田源이 받은 입학통지서는 북경대의 것이 아니라 사범전문학교였다. 그는 가지 않겠다고 입학통지서를 찢어 버렸다. 13: 紅(공산주의 사상)과 專(전문기술 능력)만을 강조하던 毛澤東 사상은 오늘날의 지식인을 이끄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老田의 건의를 받은 鄧小平은 이를 받아들인다.[지식인에 대한 다양한 방향 제시] 14: 문혁 당시 잘못된 陶鑄에 대한 잘못된 정치적 결정을 취소하고 복권(平反)하는 일이 예상보다 더디고 순조롭지가 않았다. 陳雲은 신중하게 陶鑄의 안전을 심사하기 시작한다. [더딘 복권(平反)에 대한 재추진] 15: 建國은 四人幫에 대해 반대한 경력 때문에 공산당입당이 거절되자 서기를 찾아가 논의했으나 성과가 없었다. 사회주의 정책이 형식주의로 흐르는 것이 문제였다.[형식주의적 정책의 문제를 노출함] 16: 光明日報가 발표한 『實踐是檢驗真理的唯一標準』(실천은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이다)은 많은 논쟁을 일으켰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바라던 것이었다는 주장과 毛澤東 사상에 대한 비판이자 자본주의 사회를 싹트게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충돌했다.[사상 논쟁의 발동] 17: 金鎖가 제기한 토지를 빌려 식량을 재배하자는 의견은 추진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다가, 萬裏 書記가 지지하며 실시하게 하였다. [토지임대 정책이 현실에서 장애에 부딪

쳤다(해결됨) 18: 미국에서 중국으로 파견 온 특사는 중미관계가 미국 대외전략의 중심이며 미국과 대만의 교류는 정상적인 교류이며, 중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양국 간은 공통 인식을 갖게 되었다.[중미 외교관계 개선의 업적] 19: 애국은 정신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을 잘 살게 해 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회주의라고 역설하였다. 이는 사상 개방의 흐름까지 일으켰다.[인민을 위한 사회주의 천명] 20: 鄧小平이 鞍鋼을 시찰하는데 사고가 발생해 많은 노동자들이 중상을 입자, 그는 이를 슬퍼하며 설비를 개조하고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기술혁명을 일으켜야겠다고 결심한다.[기술발전의 중요성을 깨달음] 21: 鄧小平은 중일관계에 기여한 공로 때문에 만난다는 발표를 하고 비리혐의로 비판을 받고 있는 前수상 田中을 방문하겠다고 제안을 하고 일본측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田中은 鄧小平을 만나게 되자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22: 이번 鄧小平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협심하여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일본 및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노력한다. 파견 온 일본 전문가들의 협력으로 寶鋼 문제는 해결된다.[일본과의 협력, 기술문제의 발전] 23: 陳雲동지는 61개 중요 안건 가운데 문혁 중 비판 받은 간부들의 복권 문제, 陶鑄 복권, 彭德懷 사건, 康生에 대한 부당한 비판 등 문제를 제기했고, 이를 中央簡報에 실리게 했다. 후일 이에 鄧小平은 당내에 개방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에 안심하였다.[문혁 중 착오에 대한 반성과 개방적 변화] 24: 鄧小平은 亮亮이 아버지의 복권 문제에 대해 걱정하며 딸이 쓴 편지가 실린 신문을 보고 난 후 개혁개방을 더 굳건히 할 것을 다짐하고 이를 위한 삼중전회의 강연 원고를 다듬었다.[개혁개방의 강화] 25: 전국의 지식청년(知青)들이 도시로 되돌아가는 문제는 정식으로 다루어지지 못해 모두 실망하게 되었다. 彭德懷와 陶鑄에 대한 추도회가 거행되어 모두들 文革 중 그들에게 범한 잘못에 대해 참회하였다.[문혁 중 잘못에 대한 참회] 26: 미국 북방지역의 석유회사 총재인 해리스 박사는 자신의 지인 이름을 빌려 鄧小平이 참석하는 만찬에 들어가 중국에 투자하고 싶은 뜻을 밝혔다. 鄧小平은 그의 도움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했다.[대중국 투자를 환영함] 27: 지식청년들은 다시 북경으로 田震을 찾아갔는데, 田震은 중국은 특수한 상황에 있으며 농업에 지식청년들이 헌신이 필요

하다고 호소하였고 지식청년들은 이 말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농장으로 돌아가 생산활동에 참여하였다. 28: 당에서는 청년이 농촌에 있으면 낭비라는 의견과 도시가 청년들을 수요할 여력이 없다는 의견으로 팽팽히 갈렸다. 鄧小平이 “아이들을 돌아오게 하라”는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리자, 많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다.[지식청년들의 귀가] 29: 지식청년(知青)들은 노점상을 열고 장사를 하려고 해도 당시에 사실 이는 불법이었다. 그렇다면, 법률상의 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반대로 이는 자본주의로 가지는 것이라는 의견이 또 충돌하게 되었다. 鄧小平은 개혁의 방향을 지지하였다.[개체호의 창업에 대한지지] 30: 鄧小平은 榮毅仁의 도움을 받아 화교 사업가의 중국 투자를 독려하고, 그가 신탁투자회사를 이끌도록 의견을 내었다. 합자회사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그는 많은 외자기업이 중국에 투자하게 노력하였는데, 관련 법 제정도 시급하였다.[신탁투자회사, 합자회사 등의 관련법 제정] 31: 외자기업의 투자 및 합자 관련법의 제정에서 그 투자비율을 정하는 문제는, 과연 중국이 사회주의인가, 아니면 자본주의인가의 문제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곧 鄧小平의 결정과 지지 하에 제5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회의에서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이 통과되었다.[외자기업 투자 등 관련법 제정] 32: 鄧小平은 廖承志와 조국의 통일 문제를 상의하던 중, 우선 대만의 제도를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며 대만 인민의 현재 생활수준을 보장할 것이며, 또한 1997년이 바로 홍콩회귀에 가장 적합한 타이밍이라고 언급하였다.[홍콩회귀 천명] 해리스 박사는 중국에 와서 鄧小平에게 미국의 시장경제를 소개하기에 이르렀다. 두 사람은 결국 사회주의 경제의 강점과 자본주의 경제의 강점을 결합하는 아이디어가 좋다는 결론을 맺었다. 鄧小平은 사회주의도 시장경제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을 처음 내세웠다.[시장경제를 하는 사회주의 천명] 33: 鄧小平은 麥理浩 홍콩 총독을 접견하여, 홍콩이 회귀하더라도 홍콩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투자자의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21세기 상당기간까지 자본주의 제도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聶仲勳이 광둥지역을 먼저 이끌어 나가고 싶다고 요청하자, 鄧小平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광둥성을 경제특구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격려했다.[광둥성의 경제특구 지정] 34: 중앙의 재정은 풍족하지 않았기에 경제

특구 등 지방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夏默은 토지를 외자업체에게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투자 유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제안하였고, 이는 鄧小平의 인정을 받았다. 35: 公社는 생산을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주어지는 대가가 같기 때문에 생산에 대한 적극성이 생길 수 없는 구조였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 중국 법에는 불법인 도급제 ‘大包幹’를 하는 것을 金鎖는 주장하였다. 萬裏는 이를 받아들였고, 大包幹의 성과를 직접 목도하고 지지했다.[도급제 大包幹의 실시] 36: 王光美 동지는 政協委員으로서 회의에 참석했지만, 劉少奇 前주석의 복권 문제가 남아 있어서 鄧小平에게 부담이 될까봐 늘 맨 뒤에 앉았다. 鄧小平은 王光美를 부르며 앞에 앉으시라고 권하며, 劉少奇 주석은 결백하니 그에 따른 심사가 있을 것이라며 위로했다. 37: 鄧小平은 黃山에 등산하러 왔고, 여행자들의 숙박과 식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자, 실무자들이 이에 대해 좋은 방안을 강구하길 기대했다.[여행업 활성화 추진] 38: 夏默은 토지임대료 외자를 유인하지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반대의견에 부딪혔으나 聶仲勳은 맑스 레닌의 경전에서 근거를 찾도록 지시했고 담당자들은 마침내 『레닌 전집』에서 근거를 찾아냈다.[토지임대를 통한 외자 유인 실시] 39: 穀牧와 夏默은 경제특구의 세율 문제에 대해 보고했고, 鄧小平은 세율이 너무 높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15%의 낮은 세율로 확정하도록 했다. 劉少奇는 공개적으로 복권되었다. 鄧小平은 毛澤東 사상의 역사적 지위를 확립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며 중요한 항목이라고 발표했다.¹⁵⁾[劉少奇 복권, 毛澤東 지위확립] 40: 夏建紅은 大包幹의 경험과 성과를 자세히 소개했지만 완고하게 반대하며 비판하는 의견이 의외로 많았고 이에 섭섭하게 느꼈다. 鄧小平은 包產到戶[농업생산 책임제]와 大包幹[도급제]은 농민의 요구이며 반드시 지지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夏建紅은 이 연설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包產到戶와 大包幹 실시] 41: 夏建紅은 梨園公社로 와서 鄧小平의 연설내용을 전달하고 직원들은 이 말을 듣고 한껏 고무되었다. 梨園公社는 짧은 시간에

15) “당과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는 지도자들은 자신의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마오의 유산을 거부하기보다 그의 생각을 선택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Dirlik 1981)” 신봉수, 「중국식 발전의 사상적 특징 - 마오쩌둥(毛澤東)과 덩샤오핑(鄧小平)의 다선적 사회주의발전관」, 서울, 『한국정치학보』 46(2), 2012년, 45쪽.

모범생산대가 되었고 많은 곳에서 학습하기 위해 방문했다. 42: 파라치(Oriana Fallac)는 ‘탈(脫)毛澤東’의 문제를 여러 차례 예리하게 질문했다. 鄧小平은 毛澤東의 역사적 지위와 공적은 견고히 보호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파라치는 鄧小平이 인터뷰했던 중 가장 객관적이고 지혜로운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홍콩의 선박왕 王包玉은 개인 명의로 1,000만 달러를 기부하여 호텔을 지어서 조국 건설에 기여하고자 했으나, 보수파들은 자본가의 위신을 높여줄 수 없다는 이유로 기어코 거절하려 했다. 鄧小平은 이러한 관료주의에 화를 내며, 내가 직접 기부금을 받겠다고 했다. [보수파의 관료주의에 대한 비판] 43화: 11차 6중전회(1981년 6월)에서 일치하여 『新中國 성립 이래의 약간의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를 통과시키며 문화대혁명을 철저히 부정하였다. 이로써 공산당의 지도사상에 있어서 혼란을 바로잡아 정상으로 되돌려 놓았다. [文革에 대한 否定] 44: 대처 수상이 곧 중국방문을 하려 할 즈음에 鄧小平은 홍콩문제에 관한 12조항의 방침을 확정했다. 12전대가 개최되자 鄧小平은 맑시즘의 기본원리를 중국의 구체적인 실체와 결합하여 자신의 길을 가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길을 가자고 제안했다. [홍콩문제 확정,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천명]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歷史轉換中的鄧小平』은 중국 사회의 대내개혁 또는 대외 개방이 상당 부분 鄧小平 1인의 결정과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서사 형태로서 鄧小平을 ‘영웅화’하고 있다. 물론 萬裏 翺 仲勳(翺近平 현 중국 국가주석의 아버지) 등 다른 지도자들의 개혁 추진에의 기여도 드러나고 있지만, 江澤民 이후에 공고화된 중국의 집단지도체제 이전에는 鄧小平 1인의 카리스마에 대부분 의존하던 당시의 모습이 서사전개 방식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다. 이는 걸은 집단지도체제를 표방하지만, 실제론 1인 독재의 성향을 드러내는 현재까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는 국내에서 2004년 8월에서 2005년 9월까지 방영한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에서는 영웅서사도 ‘민중의 지도자’¹⁶⁾로

16) 윤진현, 『이순신과 영웅의 쇄신 — KBS 대하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을 중심으로』, 수원, 대중서사연구11, 2005년, 31쪽. 이 드라마는 구원자로서의 이순신보다는, 국민 개개인의 재능과 역할을 이끌어내는 새로운 지도자를 열망함으로써 21세기적 요구에 따른 ‘민중의 지도자’로서의 이순신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순신은 부하와 백성들의 위대성에 힘입어 더욱 위대한 장수가 되었다는 것이다. 새로운 텍스트는 그 속의 역사적 인물

서의 일변을 강조하는 서사전략이 등장한 점과는 대조적으로, 이를 통해서도 국가 사회 및 시대성의 차이로 인해, 영웅적 인물에 대한 서사 전략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歷史轉換中的鄧小平』의 제33화의 광둥지역의 경제특구로의 지정과 관련, 그리고 제38화의 토지임대를 이용해 외자를 유인하는 정책에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 『레닌 전집』에서 근거를 찾아낸 일화를 통해 현 국가주석인 習近平의 아버지 習仲勳¹⁷⁾를 부각시키고 있는 점에서 習近平 주석의 아버지도 鄧小平 당시 개혁을 슬기롭게 주도한 주요 인물 중의 한 사람임을 자연스럽게 과시하고 있으며, 習近平 주석이 바로 대를 이어 중국의 개혁개방을 심화시켜 나갈 적임자라는 연상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동시에 鄧小平의 긍정적인 면을 강하게 부각하면서 이제까지의 개혁개방을 통한 공산당의 업적을 상기시키고 앞으로의 통치와 정책에 대해 인민들의 지지를 얻으려는, 미디어를 통한 중국 공산당의 '문화 정치'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¹⁸⁾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에는 이미 毛澤東, 周恩來, 文化大革命, 6.25전쟁[중국명 抗美援朝] 등에 대한 여러 작품들이 존재한다. 또한 習近平 총서기의 아버지인 習仲勳에 대한 다큐멘터리¹⁹⁾도 CCTV에 의해서 방영된 바 있다.

또한, 『歷史轉換中的鄧小平』에서는 鄧小平의 개혁개방의 지휘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중국의 관료주의와 복지부동의 현상까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제9화에서는 鄧小平의 대입시험 개혁에 의해 대입시험에 응시하고자 했으나, 대입시험에 참여하는 것은 근무태만이라는 직장 단위에서의 비판이 발생했고, 제11화에서는 정치심사로 대학 합격을 하지 못하는 수험생이 생겼고 제14화에서는 복권[平反]을 추진하는 것이 더더지고 제17화에서는 토지임대 정

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요청하는 변화된 서사를 반영하는데, 새 시대가 그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떠한 서사변화로써 그 요청에 부응할 지를 모색하게 된다는 것이다.

17) 習近平의 아버지 習仲勳은 鄧小平과 같은 실용주의 노선을 주창하던 前부총리이며, 일찍이 광둥성위원회 서기로서 경제특구의 발전을 지휘했던 개혁개방 정책의 구체적 실행자였다.

18) 특히 중국의 텔레비전 및 영화의 다큐멘터리는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작품이 많아, 그 프로파간다적인 성격을 많이 함축하고 있어 연구대상으로 삼을 가치가 적지 않다고 본다.

19) 2014년 10월 15일 習仲勳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中央黨史研究室, 國家新聞出版廣播電總局과 CCTV가 연합하여 『習仲勳』이란 이름의 文獻紀錄片을 제작하였고, 10월~16일에 걸쳐 6부작이 방영되었다.

책이 현실에서 장애에 부딪치는 현실이 이 다큐드라마에 고스란히 담긴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개혁개방을 이루어낸 鄧小平은 의심의 여지없이 중국 발전의 상징적 인물이며, 習近平 주석의 개혁 드라이브를 향한 인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개혁의 아이콘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다큐드라마의 형식으로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鄧小平의 영웅적인 면모도 인민의 열렬한 요청과 지지를 받는 것이었다는 이야기로서 강하면서도 사랑받는 지도자를 원하는 시대적 요청에 걸맞게 鄧小平을 호출하고 있다. 공산당의 중앙문헌연구실과 四川省 省委(공산당 성 위원회)가 조직, 지도한 작품이라는 점에서²⁰ 중국 정부의 현당대(現當代) 역사 및 鄧小平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작품은 세 번째 실각의 위기에서 다시 정계의 중심으로 복귀한 鄧小平을 다룸으로써, 習近平 시대의 개혁개방의 심화라는 임무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鄧小平을 개혁개방의 상징적 인물로서 호출하고자 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시청자들이 더욱 흥미롭게 볼 수 있는 형식을 취하여 다큐드라마 방식으로 제작된 『歷史轉換中的鄧小平』(2014)는 鄧小平이 軟禁상태에 있던 당시인 1976년 문화대혁명 말기 毛澤東의 사망 27일 후부터 1984년에 천안문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군대의 大閱兵을 사열하기까지의 역정을 담고 있다.²¹ 특히,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建設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이라는 중대한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 시기 동안의 鄧小平의 고뇌와 노력을 담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당시의 역사사건과 배경을 鄧小平이란 인물의 언행의 궤적을 세세히

20) <http://www.chinanews.com/cul/2014/08-08/6474172.shtml> (2018년 9월10일 검색)

21) 劉瑞(2014)은 인물 다큐멘터리의 서사방식이 일원화에서 다양화되고 픽션(fiction) 서사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 영상언어, 내레이션, 음악 등도 극영화적인 재현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劉瑞, 「人物紀錄片故事化敘事探析」, 開封, 『河南大學碩士學位論文』, 2014년 이 논문은 서사방식의 변화에 대한 분석으로서 본 연구에 시사하는 부분이 크다. 任穎子(2012)는 세 편의 인물 다큐멘터리의 서사 특징 및 서사구조의 서로 다른 기법과 형식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다. 任穎子, 「人物紀錄片的敘事特征與敘事結構模式透析」, 南京, 『南京航空航天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2년 第2期 이 다큐드라마의 제작과 방영은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인물로 鄧小平을 형상화하고자 하는 제작의도와 함께 위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다큐멘터리 형식이 다양화하고 있는 경향에 따른 반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살펴볼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사회 분위기를 개혁개방의 더 적극적인 추진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전체적으로 餘秋裏, 老夏와 老田과 같은 인민들의 이야기도 등장하여 중국 사회에 대해 염려하기도 하고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여러 상황들이 중간 중간 등장한다. 또한, 시작부분부터 建國나 田源 등의 젊은이들이 鄧小平의 복권을 희망하며 鄧小平의 전면적인 등장 후에는 조국의 개혁 개방이 더 전면적으로 실시되길 바라는 모습들이 등장하면서, 鄧小平이 주인공으로서 이끌어가는 주요 서사 사이사이에서 개혁개방의 당위성을 추동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과 같은 '인민들'이 鄧小平의 개혁개방의 확대와 가속화에 대한 소망을 직간접적으로 鄧小平 및 여타 정치지도자들에게 전달하는 내용들은 또 다른 서사 전개의 한 축을 맡으면서 鄧小平 위주의 개혁개방 서사와 함께 착중하고 있다.

3. 鄧小平 인물 서사변화에 따른 의미 탐색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연구대상 작품별 등소평 인물 서사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오늘날의 다큐멘터리의 서사가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대상 인물의 특징과 배경에 따라 다양한 서사방식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듯,²²⁾ 위의 작품들은 뉴스보도와 같은 자료와 공식적 업무와 연관된 관련자들의 인터뷰와 공적인 업적에만 치중하는 서사를 보여주는 것이 『鄧小平』이라면, 『百年小平』의 서사는 정치 지도자의 인물 다큐멘터리가 '평민화'의 서사전략에 의해서 시청자와의 거리를 좁히고 그 인물의 '인간적인 면모'에 주목하여 동등한 관점에서 일상의 사소할 수 있는 부분도 다루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²³⁾ 鄧小平 일상의 사적인 영역에서

22) 袁雪, 「人物紀錄片影像敘事的美學」, 成都, 『西部廣播電視』, 2016년 第5期.

23) 牛光夏, 「新世紀領袖人物紀錄片的敘事策略」, 北京, 『中國電視』, 2013년 第1期 이 논문에서 언급하는 이러한 새로운 관점의 서사전략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 시대적 의미에 대한 고찰에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그가 따뜻하고 섬세한 인품을 지닌 인물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歷史轉換中的鄧小平』에서는 인민들이 원하는 바들을 경청하고 실행하면서 개혁개방을 반대하는 일부 보수파들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개혁개방을 강력하게 이끌어간 ‘영웅적’인 면모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전기문, 영화, 드라마 등의 매체에서 한 인물의 여러 가지 면모에서 그 ‘문화정치’가 요구하는 부분을 필요에 따라 부각시키는 것은 서사전략의 한 방법론이기도 하다.²⁴⁾ 『鄧小平』, 『歷史轉換中的鄧小平』, 『歷史轉換中的鄧小平』에서는 이 세 작품을 관통하는 것은 바로, 『鄧小平』의 매회의 첫부분에서 등장하는 “나는 인민의 아들이다. 나는 나의 조국과 인민을 깊이 사랑하고 있다.”(我是人民的兒子, 我深情地愛着我的祖國和人民)라는鄧小平의 말로 요약할 수 있다. 매우 감성적 호소력을 지니는 이 구호는 그의 일생을 거친 고난의 경력과 그 극복, 그가 실행한 정책들이 바로 인민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호소한다. 이것은 그에 대한 신망과 존경으로써, 공산당을 향한 支持와 정치적 忠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여겨진다.

결국 이 글의 연구대상이 된 세 작품은 모두鄧小平의 정치인으로서의 일면이든, 한 인간으로서의 풍모에 대해서든, 讚揚—邊倒와 美化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그의 일생에서 論難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했듯이 위 작품들에서 아예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1989년의 ‘6·4 천안문 운동’에 대한 언급은 물론이고, 문화대혁명에서 下方을 겪게 된 원인과 그 정치적 의미, 즉 공산당 내부의 권력투쟁에 대해서도 아예 회피해 버린 셈이다. 오히려 ‘6·4’는 그 정치적 의미에서만 아니라,鄧小平으로 하여금 개혁개방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²⁵⁾도 존재한다는 면에서 이 사건

24) 김경남, 『근대 이후 이순신 인물 서사 변화 과정의 의미 연구』, 한민족어문학61, 2012년. 305쪽 참고. 이 논문은 근대 계몽기에서 교수요목기에 이르는 동안(1895~1955) 교재에 나타난 이순신상을 중심으로 그 서사 의미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이를 통해 동일한 영웅일지라도 서사 내용과 인물의 성격 창조 등이 달라짐을 확인하고 이는 교재가 교육을 전제로 하며, 교육의 목표가 되는 인물상은 시대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25) ‘6·4’를 수습한 후 중국 정치의 ‘남아있는 문제’는鄧小平 1인에게 넘어갔다.鄧小平은 공산당 정권을 구해내기 위해 근본적으로 ‘공산주의—공유제’의 이념과 체도를 폐기하기로 결심했다. 1992년鄧小平은 ‘남순’하여 ‘개혁개방’을 계속하기로 선언하였고 중국이 대규모의 사회화를 길로 접어들게 했다. 90년대 초기鄧小平은 중국의 진정한 ‘太上皇’이 되었다. 高

의 전후 맥락까지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중국현대사에서의 鄧小平과 관련한 어두운 역사적 사실은 배제 혹은 생략한 자체는 공산당의 과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언론을 통제하는 공산당의 한계에서 비롯된다. 鄧小平을 3번의 실각 위기를 극복하고 중국을 세계최강국의 하나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간 개혁개방의 총설계자라는, 위인으로서의 면모만 부각시키고자 한 의도를 지닌 것으로 풀이된다. 권위와 존속의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문화정치’를 구현하는 일면이라고도 할 수 있다.

4. ‘문화정치’에 가려진 무거운 현실

공산당의 역사이기도 한 鄧小平의 일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기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지적해야 할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의 개혁개방이 가진 한계이자 부작용이 그것이다. 그의 타계 당시 이미 중국사회에서 “노동자는 개혁개방의 와중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에 의해 실질임금이 감소하여 상대적 인 소외계층으로 전락하는 상태이며 이 때문에 많은 노동 분류가 빈발하고 있”²⁶⁾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실제로 시장경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개인의 역할이 강조되었고 사적 소유하의 경쟁과 소득격차의 인정 그리고 지역격차 등은 잠복적인 사회적 위기를 안고 있”²⁷⁾었지만, 이러한 소득격차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나 지역격차는 여전히 중국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 鄧農간의 빈부 격차로 인한 양극화도 여태껏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이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어느 국가도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농업은 “농지감소, 농업자금부족, 일손부족으로 인해 생산의욕을 잃고

阜, 『鄧小平 胡耀邦 趙紫陽 三頭馬車時代』, 홍콩, 明鏡出版社, 2009년 342쪽.

26) 이회옥, 『덩샤오핑 없는 중국 어디로 갈 것인가』, 서울, 말, 1997년 4월호, 94쪽.

27) 최관장, 「중국 개혁개방정책의 이론기초와 그 전개과정」, 『중국학연구』 제21집, 2001년, 316쪽.

있다. 이 때문에 무작정 도시로 이동하는 농촌노동력은 줄잡아 1억 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지만²⁸⁾ 대다수의 농민이 도시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불법체류자’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주목할 문제는 중국에서의 부패가 “규모도 확대되고 부패의 시슬구조도 최상급까지 확대되었다.”²⁹⁾는 점이다. 이는 習近平 정부도 개혁과제로 실행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중국 개혁개방 정책의 핵심인 현대화와 경제발전의 관건은 바로 정치개혁에 달려 있음은 중국내 정치지도자나 관계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³⁰⁾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중국 지도부의 “권력이 많이 제도화되었다 해도 여전히 교차검직으로 집중되어 있고, 정책 결정 과정도 투명하지 않고 비밀에 쌓여 있다”³¹⁾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부패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는 정책과 제도의 결정과정 및 결과에 대한 불투명성은 중국 인민들의 높아져가는 사회의식에 의해 저항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에서 시장경제가 발전할수록 자유와 경쟁의 관념이 보다 발전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개혁개방과 동등하게 위치되어 있는 4항 기본원칙의 견치(사회주의 영도, 공산당의 영도, 인민민주독재, 마르크스·레닌주의·모택동사상의 견치)와 도 모순의 폭이 넓어질 수도 있다.”³²⁾ 관련 전문가들도 “현재로서는 이러한 욕구가 개혁의 드라이브에 밀려 다소 숨을 죽이고 있지만, 이것이 한계에 도달하고 개혁의 부작용—빈부격차, 인플레이, 고실업, 관련 부패 등—이 첨예하게 되면 정치체제의 변화를 수반할 수 있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³³⁾ 라고 진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28) 上同.

29) 上同.

30) 金鴻秀, 「鄧小平體制的 初期 政治體制改革에 관한 研究」, 『사회과학연구』 제11집, 1995년, 175쪽.

31) 조광수,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현대 중국 정치와 리더십」, 『오늘의 동양사상』 제17집, 2007년, 186쪽.

32) 上同. 鄧小平 사후 이것을 공산당 당장에 기입하였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https://baike.baidu.com/item/%E5%9B%9B%E9%A1%B9%E5%9F%BA%E6%9C%AC%E5%8E%9F%E5%88%99/280112?fr=aladdin>, (2018년 10월 9일 검색)

33) 金楨桂, 「中國共產黨 統治이데올로기의 變容過程 研究」, 『동아인문학』 제14집, 2008년.

6·4 천안문운동 진압에 대한 책임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鄧小平이 당연히 全知全能한 인물일 수는 없기에 이러한 개혁개방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의 책임을 그에게만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개방의 실시과정에서 지역의 불균형, 특히 都農二元化에 따른 농민의 戶口 문제 등, 대다수 인민들이 열악한 처지에서 생계를 꾸릴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개혁개방 실시의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더욱이 그는 바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체제의 지도자란 점에서 비판의 칼날을 피하기는 어렵다. 개혁개방의 총설계사로서 그가 지니는 이러한 기본한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중국 공산당은 '문화정치'의 일환으로서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으로 등소평을 호출하고 있다. 2000년 대 TV프로그램 서사에서 각각 다른 각도의 '미화'에만 치중함으로써 활용하고 있다.³⁴⁾ 이러한 현실은, 그들에게 깊이 있는 성찰과 분석으로써 중국 상층부의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실질적인 '개혁' 의지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방증 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는다.

〈參考文獻〉

韓冰潔, 「再次問候: 小平, 您好——電視文獻紀錄片『鄧小平』播出反響側記」, 『瞭望新聞周刊』, 1997년 第4期.

黃英傑, 「人民選擇了鄧小平——喜看電視文獻紀錄片『鄧小平』」, 『電聲評介』, 1997년 第2期.

鄧小軍, 「集檔案珍品展偉人豐采——訪大型文獻紀錄片『鄧小平』撰稿人」, 『中國檔案』,

34) 이러한 점은 毛澤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中共湖南省委와 中央文獻研究室 그리고 中央黨史研究室 등이 함께 출판하였고 CCTV의 다큐멘터리 채널에서 毛澤東 탄생 120주년을 맞아 기념하여 방영한 毛澤東에서도 그와 관련하여 대약진운동이나 문화대혁명을 주도한 데 따른 과오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 다만, 드라마가 끝날 때, 자막을 통해서 “그는 비록 ‘문화대혁명’ 중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의 일생으로 볼 때 그의 중국혁명에 대한 공적은 그의 잘못보다 훨씬 크다 그의 공적은 가장 뛰어나다……(他雖然在“文化大革命”中犯了嚴重錯誤, 但是就他的一生來看, 他對中國革命的功績遠遠大於他的過失。他的功績是第一位的……) 그리고 이것은 《關於建國以來黨的若干歷史問題的決議》(건국 이래의 당의 약간의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이며, 1981년 6월 27일 中國共產黨第十一屆中央委員會第六次全體會議에서 일치 통과했다는 자막도 나온다.

1997년 第4期.

蒙麒百, 「光輝曆程恢宏畫卷——大型電視文獻紀錄片『鄧小平』評析」, 『寫作』, 1998년 第4期.

陳晉, 「你走了一個世紀你走出一個時代」——參加創作文獻紀錄片『鄧小平』的隨想, 『百年潮』, 1997년 第2期.

秦傑, 「爲20世紀的中國記史立傳——大型文獻紀錄片『鄧小平』拍攝記事」, 『世紀行』, 1997년 第4期.

龍符, 「偉人風采——觀電視紀錄片『鄧小平』有感」, 『電影評介』, 1997-03期.

賈秀清, 「電視紀錄片類型探索——評口述歷史電視紀錄片『百年小平』的形式突破」, 『電視研究』, 2004년 第9期.

李稚田, 「創新的紀念是最好的紀念——談口述歷史電視紀錄片『百年小平』」, 『電視研究』, 2004년 第9期.

董軍, 「主旋律影視劇創作的“三問”——評電視劇『歷史轉折中的鄧小平』」, 『中國電視』, 2015년 第9期.

夏文彬, 「歷史題材電視劇如何進行劇情建構——以『歷史轉折中的鄧小平』爲例」, 『新聞世界』, 2015년 第1期.

金楨柱, 「中國共產黨 統治이데올로기의 變容過程 研究」, 『동아인문학』 제14집, 2008년.

金楨柱, 「改革初期 中國 後繼엘리트 培養體制的 改革背景과 方向」, 『동아인문학』 제17집, 2010년.

金鴻秀, 「鄧小平體制的 初期 政治體制改革에 관한 研究」, 『사회과학연구』 제11집, 1995년.

박형기, 『덩샤오핑 개혁개방의 총설계사』, 살림, 2007년.

백경선, 「텔레비전 역사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의 이중 담론」, 『한국극예술연구』 제43집, 2014년.

손검평, 『드라마 「웃어라 동해야」 속 가족관계에 대한 서사구조와 이데올로기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논문, 2011.

스튜어트 홀 저, 임영호 옮김, 『문화, 이데올로기, 정체성: 스튜어트 홀 선집』, 이리라, 2015년.

시진핑 지음, 차혜정 옮김, 『시진핑, 국정운영을 말하다』, 와이즈베리, 2015년.

신봉수, 「중국식 발전의 사상적 특징 - 마오쩌둥(毛澤東)과 덩샤오핑(鄧小平)의 다선적 사회주의발전관」, 『한국정치학보』 46(2), 2012년.

워렌 벅랜드 저, 장석용 역, 『영화연구(Film Studies)』, 현대미학사, 2002년, 188-189.

에즈라 보걸 지음, 심규호, 유소영 옮김, 『덩샤오핑 평전: 현대 중국의 건설자』, 민음사, 2014년.

- 이희욱, 『덩샤오핑 없는 중국 어디로 갈 것인가』, 말, 1997년 4월호.
- 윤대주, 『2천 년대 TV 정치드라마의 대통령 이미지 분석』, 국민대학교 석사논문, 2011년.
- 이정남, 「시진핑(習近平)지도체제의 등장과 중국의 정치개혁과 정치변화 전망」, 『아세아 연구 통권』 151호, 2013년.
- 조광수,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현대 중국 정치와 리더십」, 『오늘의 동양사상』 제17집, 2007년.
- 런즈추 외 지음, 임국웅 옮김, 『후진타오(대륙을 질주하는 검은 말)』, 들녘 2004년.
- 최관장, 「중국 개혁개방정책의 이론기초와 그 전개과정」, 『중국학연구』 제21집, 2001년.
- 한석희 지음,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 대외관계(아연중국연구총서 15)』, 폴리테이아, 2007년.
- 중공중앙문헌연구실 편, 성균중국연구소 옮김, 『시진핑, 개혁을 심화하라 習近平, 關於全面深化改革論述摘編』,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5년.

〈Abstract〉

A Study on the Meaning of Change about the Story of DengXiaoping
in the Chinese Central TV Program after 2000s

Lee, Byoung-Min

The producer of Documentary 『Deng Xiaoping』 can utilize his archives of many interviews, screens of materials and documents and those materials are being a good report of his whole life as a political leader.

Though they are attempting humane approach, because that the documentary is proceeded with explanations of narration on his works and the recollections about his achievements, which are remembered by the interviewee, most of them, regardless of their rank, are the people who had the relations with him in the past works, it gives us somewhat sturdy feelings as we are seeing news on Deng Xiaoping.

On the other hand, 『Deng Xiaoping of 100years』 has collected not only appreciations and recollections on Deng Xiaoping as a politician from the diplomats, officers, reporters, college students, publishers, but remembered him introducing humane episodes in his

everyday life experienced by his family, family members of neighbor leaders, cooks, crews, nurses of his private train, house manager, barber, etc.

『Deng Xiaoping in historical turn』 naturally made a display of Xi Zhongxun, the father of Xi Jinping as one of the important people who had led the reform in the years of Deng Xiaoping with him and it looks an association of ideas that Xi Jinping is the very people to carry on his family line and expand China's reform and opening up.

Those documentaries could be understood as a way of cultural politics through media to acquire the support of people and the future rule and policy strongly embossing Deng Xiaoping's affirmative side, to remind communist achievements through reform and opening up,

Aside from his put down of 6.4 Tiananmen riot, Deng Xiaoping as a Chinese leader advocating 'socialism', could not escape from the critics that he made a reform assuming regional inequality, especially social unfairness such as farmers registration followed by duality of agriculture and urban community.

None the less, the reality that the Chinese Communist attached only to beautifying and utilizing him for activating culture politics breed a matter of concern that it is a circumstantial evidence that they are lack of will to solve the difficulties left with the Chinese society by deep reflection and analysis.

Key words: Chinese Central television, Deng Xiaoping, Change about the Story, Xi Jinping, Reform and Opening up, Cultural politic

이 논문은 2018년 10월 15일에 접수되어 2018년 10월 29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8년 11월 13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